

'현우경' 이야기 (46)

아버지와 아들

연로한 아버지를 실수로 죽게 한 인연

한 노인이 일찍이 아내를 잃고 아들과 단 둘이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맛본 노인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날 노인은 아들과 함께 부처님을 찾아갔다.

"출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출가하려고 하느냐?"  
"윤회의 고리를 끊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노인의 결심을 듣고 출가를 허락해 비구가 되었다. 이때 부처님을 본 노인의 아들 역시 출가를 결심했고 아직은 나이가 어려 사미가 되었다. 이제 둘은 부자의 관계를 넘어서 스승과 제자가 되었다. 둘은 함께 마을에 들어가 결식하고 수행자로 살아갔다. 아버지는 한 손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은 아들의 팔을 잡고 마을을 오갔다. 둘은 수행자의 삶이 행복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역시 둘은 궁벽한 마을에 가서 결식하고 저물어서야 발길을 돌렸다. 돌이 험한 산 고개를 넘어

가고 있었다. 뒤로는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아버지를 일단 앉세웠다. 아버지에게 지팡이를 짚게 하고 아들은 뒤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따라갔다.

하지만 뒤의 맹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 갔고 결국 아들은 급하게 걷다가 앞의 아버지를 밀고 말았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산길로 굴러 넘어떨어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머리를 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 되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아들은 부처님을 찾아갔다. 망연자실한 아들이 들어서자 입구에 있던 비구들이 사미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 표정이 왜 이런 것이냐? 너와 함께 나갔던 스승님(아버지)은 어디 간 것이냐?"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영영 울고 말았다. 한참을 울고서야 아들은 자초지종을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비구들은 아들을 나무랐다.  
"넌 참으로 나쁜 놈이로구나. 어찌 네 아



삽화 · 강병호

비지이자 스승을 죽일 수 있느냐!"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 이에 대해 알렸다. "그 스승이 죽었지만 그것은 악의에서 온 행동은 아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사미에게 물었다.

"너는 네 스승을 죽였느냐?"

"네, 제가 부주의해 스승님(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사미야, 나는 네 마음을 안다. 네게는 악의가 없었다. 지나간 세상에는 네

가 지금과 같이 악의 없이 죽은 일이 있었느니라"

그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내 물었다.

"알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나간 세상에 이 두 부자에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서로 죽였습니까?"

"자세히 들어라. 너희를 위해 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리라"

아주 오랜 옛날 한 부자가 있었다. 아버지는 병들어 몸져누워 있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살고 있었다.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해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날이었다. 아버지가 잠들려 하던 파리가 날아와 얼굴과 손발을 간지럽히며 괴롭게 했다. 너무나 짜증이 났던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파리를 쫓게 했다.

하지만 파리는 끊임없이 계속 달려들었기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를 괴롭히는 파리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랐다. 육하는 감정에 자기도 모르게 몽둥이를

찾아들었다. 그리고 달려드는 파리를 향해 거침없이 몽둥이를 날렸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파리를 친다는 것이 실수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만 것이다. 아버지가 머리에 피가 철철 났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으며 오열했지만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라 그때의 아버지는 바로 이 사미요. 그때의 몽둥이로 아버지의 이마를 때린 아들이 바로 지금 죽은 저 비구니라. 그때에 그 아들은 몽둥이로 아버지를 죽였으나 악의가 아니었다. 때문에 지금의 사미의 일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니라"

그때에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마음으로 믿고 이해했다. 그리고 사미를 진정으로 위로했다.

사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전생과 관련된 인연과보에서 온 것임을 크게 깨달았다. 그렇게 인연과보의 원리를 깨우친 사미는 계율을 피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구성=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8) - 미워하다 목숨을 잃은 자 - 구성-김흥민

옛날에 어떤 이를 크게 미워하는 한 사내가 있었다. 미워! 미워!

견딜 수 없는 고통 해주소!

파라다! 짹! 짹!

흐흐흐 이 고통을 그자가 받고 있다는거죠? 그럼요!

고통을 안겨 주겠어!

사내는 주술사를 찾았다.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맞으면 그에게 통증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해볼래요? 고통을 준다면야-

더 센걸로 합시다!

이건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 지! 지!

자아-갑니다! 세계 때려요!

파! 박! 박!

아이고- 접딜만 해요? 그만 할까요?

쫄쫄... 죽었네! 이 밝은 표정은 뭐지?

어리석은 범부들도 이와 같아서 남을 미워하다 먼저 성을 내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기 구웠소? 으잉? 멀쩡하네...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새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밑납초 - 一人一燭 연꽃밑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밑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밑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밑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